

연구에 참여할 어린이를 모집합니다.

경계선지능 아동의 인지향상을 위한 전산화 인지재활프로그램(두브레인)의 인지 개선 등 효과성 평가를 위한 단일기관, 단일맹검, 탐색적 임상시험

목적

가정에서의 수행하는 모바일 전산화 인지재활프로그램(두브레인) 훈련이 경계선지능 아동의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탐색적 임상시험

방법

- 두브레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군이나 교육용 동영상을 시청하는 군에 1:1로 무작위 배정됩니다.
- 무작위 배정 결과에 따라 각 가정에서 총 12주 동안 매주 5회 해당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, 시간은 매회 약 15분 정도씩 소요됩니다.
- 병원에는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를 위해 각각 1~2회씩 방문하여 지능 및 주의력 등의 인지기능 검사와 설문지 평가, 시선추적 및 뇌영상 검사를 무료로 받게 됩니다.

대상

- 경계선지능(IQ 71~84) 범위 이하에 해당하는 만 5~6세(생후 60~72개월) 아동
- 약 12주의 연구 기간 중 기존에 시행하던 개인교습,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인지치료, 언어치료 등의 재활치료와 약물치료의 횟수 및 내용을 변경할 예정이 없는 아동

단점

- 예측 가능한 부작용: 뇌영상 촬영 시 가만히 있기 어려운 아동은 수면 유도 약물을 복용하며, 일부의 경우 오심, 구토, 어지러움 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불편사항: 인지기능 검사의 소요시간은 약 5시간 정도 예상되지만, 아동의 협조도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. 뇌영상 촬영 자체의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이며, 수면 유도를 할 경우 최대 1시간 이내의 대기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문의

연구책임자: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순범 교수

문의: 홍순범 교수 연구실 강소연 선생님(02-2072-4582)

임상시험 기관: 서울대학교병원 (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)